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2월 20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7주일(2월 20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27-3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빵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빵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복음 나누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루카 6,27)

미운 그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루카 6,31)

형제자매,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인聖人입니다. 아니, 남을 심판하지만 않아도 성인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 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자주 만납니다. 미운 짓을 하는 이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쁜 소문' 을 내고 싶어집니다. 그럴 기회도 자주 옵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덕입니다. 평생 쌓아야 할 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순간에 용서하려 듭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기회가 오면 늘 '좋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조금은 좋아 보입니다. 험뜯고 비난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은총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좋게 생각하는 것' 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역시 그렇습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자세가 용서의 출발입니다. 사랑과 용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복음 나누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①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 이자 '함께 참여하는 교회' 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공동체에서 반장이나 서기에게만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소공동체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역할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 반장, 서기, 복음나누기 진행 담당, 선교담당, 봉사활동 담당, 회계담당

이때 역할배분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담당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장의 역할

- ① 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의 연락망을 가동해, 모임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공지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② 모임 공백기 동안 구역과 반, 넓게는 본당의 특이 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둡니다.
- ③ 서기에게 협조를 구해 지난 모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둡니다.
- ④ 지난 모임에 계획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⑤ 소공동체 모임 진행자 및 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역할을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⑥ 모임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행자가 복음나누기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거나, 한 개인이 나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소공동체 모임 성격에 너무 어긋나는 몸짓 혹은 기도를 요구할 때 등).
- ⑦ 소공동체 모임과 복음나누기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점검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